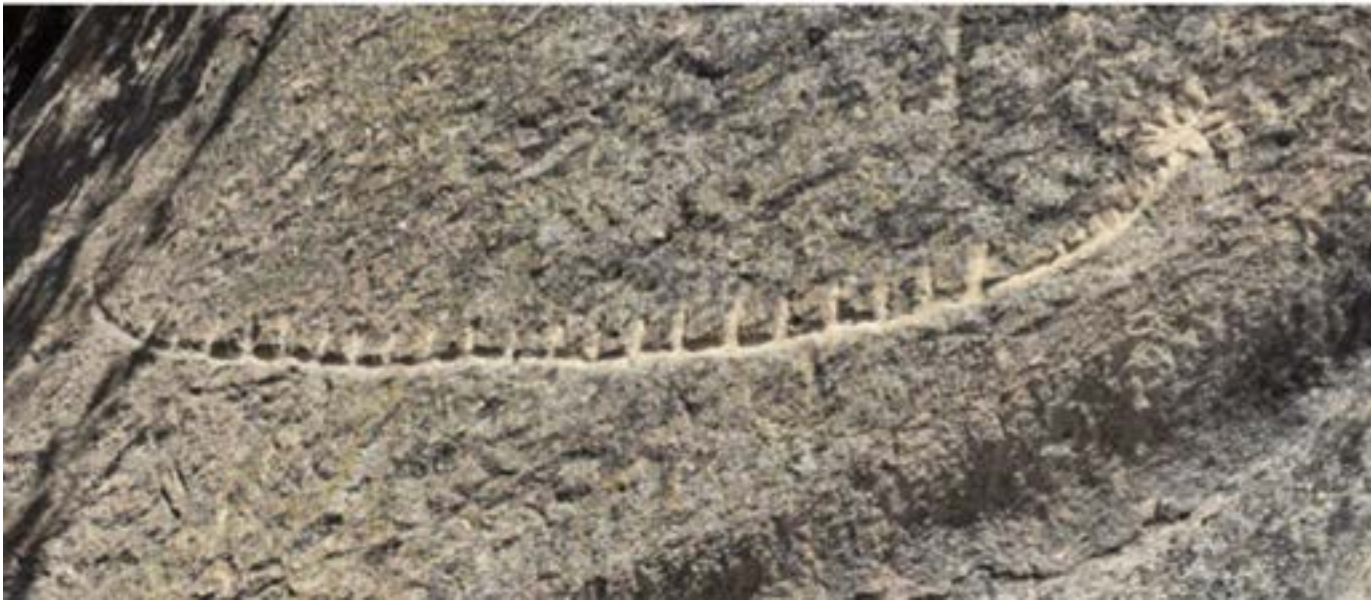


한민족의 이동경로에서 찾은 흔적

한민족이 천손민족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선민이라는 것이다. 한민족의 시조 단군이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단지파의 선조 '단'이다. 그러므로 단지파가 곧 한민족이다. 한민족은 지금으로부터 약 3천 2백 년전에 이스라엘 소라 땅에서 동으로 이주하여 한반도 대동강변(북위 39도선에 위치)에 도착하여 그곳에 고조선을 3천 년 전에 건립한 것이다.

지금으로부터 3천 2백 년전에 이스라엘 소라 성읍과 단 성읍에서 단지와 백성들이 이주할 때 인구수는 수십 만명으로 추정할 수 있다. 3천 4백 년전에 단지파의 전쟁 가능 인구가 62,700명으로 유다지파에 이어 두 번째로 많았던 것이다(민수기 1:39). 그리고 가나안 입성 초기에 모세의 손자 요나단을 단지파의 제사장으로 추대하고 헬몬산 남쪽 '라이스'라는 비옥한 땅을 점령하여 단 성읍을 건설함으로써 그곳에서 약 2백 년 동안 거주하면서 단지파의 인구수는 급격히 증가할 수밖에 없는 조건을 갖추게 된 것이다.

수십 만명에 해당하는 단지와 민족의 대이동은 처음에는 북동쪽으로 시리아, 이라크, 이란을 경유해야 했는데, 그곳은



고부스탄 암각화에 단지파 민족이 해돋는 곳을 향하여 일사불란하게 동방으로 이동하는 장면을 새겨놓은 모습

미탄니 왕국에 속했다. 그런데 단지와 민족이 기원전 1248년경에 이스라엘 소라 땅에서 출발하기 12년 전에 해당하는 기원전 1260년경 미탄니 왕국은 히타이트와 아시리아에 의해 패망하였기에 시리아, 이라크, 이란을 경유하여 카스피 바다에 이르기까지 아무런 장애를 받지 않고 지나갈 수 있었다.

카스피 바다의 동쪽으로 빠죽이 내민 압세론 반도에 아제르바이잔의 수도 바쿠

(북위 40도선에 위치)가 있고 바쿠에서 남쪽으로 65킬로미터 지점에 있는 해변가 '고부스탄'이 있다. 고부스탄에 도착한 수많은 단지와 백성들은 울창한 숲의 나무를 베어 수레에 실어 해변가로 옮긴 다음 배를 만들어 타고 태양이 떠오르는 곳을 향해 나아갔다. 고부스탄은 '돌'을 뜻하는 '고부(Gobu)'와 '땅'을 뜻하는 '스탄(stan)'이 합성된 바위지역에서 유래했다.

고부스탄에는 6천 개의 암각화가 있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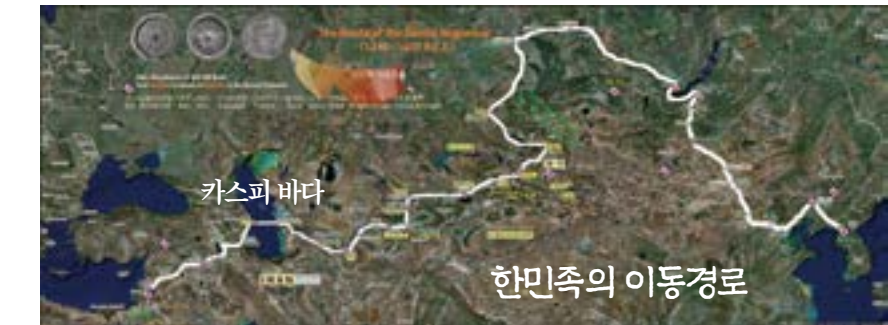
데 대부분 선사시대에 새겨진 것이며 청동기 후기(BC1200년경)에 새겨진 것도 많이 발견된다. 단지와 민족의 대이동과 관련된 고부스탄의 암각화에는 수많은 낙타와 당나귀에 이삿짐을 싣고 이동하는 모습이 새겨져 있으며, 또 수많은 황소와 양, 낙타, 당나귀 등을 구분해서 위쪽에 서 아랫쪽으로 배열해서 새기고 맨 마지막 아랫줄에는 기다랗게 생긴 배들이 동서로 오고가는 모습이 새겨져 있다.*



▲ 고부스탄 암각화에 새겨진 수레는 배를 만들기 위해 나무를 실어나른 용도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며 태양을 상징하는 문양이 그려진 배를 타고 있는 지도자가 동쪽으로 팔을 뻗어 진행 방향을 가리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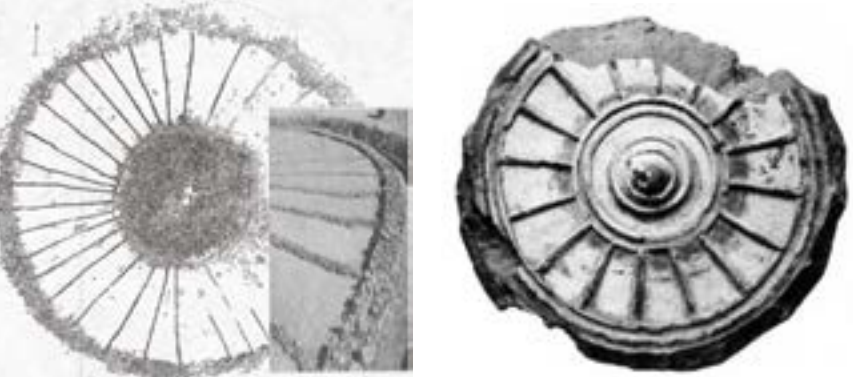
▲ 고부스탄 암각화에서 위쪽 세 줄은 황소와 양, 그다음 두 줄은 이삿짐을 실은 낙타와 당나귀이며, 맨 아래쪽 줄은 수많은 배들이 동쪽과 서쪽 해변으로 오고가는 모습이다.



한민족의 이동경로



▲ 카스피 바다를 건너 단지파 민족이 계속해서 동진하여 알타이 산맥까지 와서 싼다오하이쯔(三道海子)에 태양 모양의 돌무더기를 쌓았는데 높이가 15미터이며 지름이 100미터나 된다.



▲ 울루그 호를(Ulug-Khorum) 유적은 몽골 서북쪽에 위치한 시베리아의 투바 사글라 강과 가까운 사글라 마을의 입구에 위치해 있다. 발굴 과정에서 이 유적은 무덤이 아니라 의례 장소라는 것이 밝혀졌다. 중앙에 돌로 쌓여 있는 봉분은 태양처럼 보이며 직경 66미터의 원 둘레에 2~3겹으로 돌을 쌓았다(위의 사진 좌측 참조).

위의 오른쪽 사진은 기원전 11~10세기에 고조선 시대에 제작된 와당으로 한반도 대동강 유역의 평천리에서 출토되었다. 와당 중심에 태양은 한민족이 지중해의 가나안 땅에서 해돋는 동방으로 이주해왔다는 것을 전한다. 지금으로부터 3천 2백년 전에 한민족(단지파 민족)이 알타이 산맥에서 일백 년간 우거하다가 몽골초원과 만주 지역을 거쳐서 압록강을 건너 대동강 유역에 고조선을 건립하였기에, 고조선이 천년 동안 존속하는 가운데 한민족의 활동 무대는 몽고 초원과 만주와 연결되고 산동성까지 진출한 것으로 보인다.



원편의 사진은 원시 히브리어(Proto-Hebrew)에 해당하는 올드네게브(Old Negev) 문자가 새겨진 4종류의 와당(12지파 와당①, 꽃무늬 와당②③④⑤⑥, 단Dan의 독수리 와당⑦⑧⑨, 오엽화 와당⑩⑪⑫)이 더 있다는 것을 알고 동종(同種)의 와당을 찾아 정리한 것이다.

- ① 일본 테츠카이바대학 부속 박물관 소장
- ② 일본 테츠카이바대학 소장
- ③ 일본 테츠카이바대학 소장
- ④ 경희대학교 중앙박물관 소장
- ⑤ 시대: 고조선, 출토지역: 평양 강남구 원암리(猿巖里), 소장기관: 동경 국립박물관 소장
- ⑥ 출토지역: 한반도 북부, 동경 국립박물관 소장
- ⑦ 일본 사이타마 대학 소장
- ⑧ 시대: 고조선, 출토지역: 평안남도 대동군(大

同郡) 대동강면(大同江面) 토성리(土城里) 토성(土城), 소장기관: 국립중앙박물관, 소장품번호: 본관(本館)-008464-003

- ⑨ 경희대학교 중앙박물관 소장, 유물번호 301385-000
- ⑩ 일본 테츠카이바대학 부속 박물관 소장
- ⑪ 경희대학교 중앙박물관 소장, 유물번호 301429-000
- ⑫ 시대: 고조선, 출토지역: 평양 대동강 유역, 소장기관: 국립 광주박물관, 유물번호: 본8464(구 215)*

※ 대동강변에서 출토된 와당에 새겨진 문자는 지금으로부터 약 3천5백 년 전에 모세 시대에서 시작하여 사사 시대(약 4백년간 지속)까지 사용된 고대 히브리어 문자이기에 이를 근거로 고조선 건립 시기를 유추할 수 있다.

금주의 말씀 요절

전 세계를 향하여 선포한다 <12>, <13>

“나라는 주체의식을 죽이는 것이 부활이요, 순교요, 중생이다”

나라는 주체의식이 마귀요, 나라의 주체 기고, 죄를 이기고, 사망을 이기고, 무덤을 의식이 죄요, 나라의 주체의식이 사망이요, 파하고, 양심의 영인 하나님의 영이 내가 나라의 주체의식이 무덤입니다. 되면 부활함을 입었다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고로 무덤 속에 갇혀있는 생명의 영 그런고로 순교의 영이나, 부활함을 입었이 되는 양심의 영인 하나님의 영이 나라는 다는 말씀이나, 성령으로 거듭나라는 말씀 주체의식을 제거해버리고 나라는 것을 이 이다 똑같은 말씀입니다.*

“하나님 되는 비결은 누구든지 내 몸처럼 여기는 것”

원래 사람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 리 많아도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가 으로 되돌아가기만 하면 죽을 수가 없는 되면 네 나라, 내 나라가 없어지며, 네 집 것입니다. 하나님이 되는 비결은 누구든지 내 집도 없어지므로 전 세계 만민이 다 하 내 몸처럼 여기는 것입니다. 나가 되어 이 세상이 천국이 됩니다.

형제가 내 몸인데도 남의 몸으로 여기는 서로 만나면 활짝 웃으면서 먼저 눈에 것은 바로 분별하는 마음, 못마땅한 마음, 띄는 사람마다 내 몸처럼 여기면서 꼭 인 미워하는 마음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그 사를 나누세요. 형제의 죄를 내 죄로 여기 러므로 누구든지 내 몸처럼 여기기만 하면 고 형제의 잘못을 내 잘못으로 여기고, 어 너와 나라는 개체의식이 없어집니다. 려운 일이 있을 때 서로 협조하면 일체(一 누구든지 내 몸처럼 여기면 인류가 아무切的 욕심이 다 없어지고 하나가 됩니다.*

이기는 삶

하나가 되는 길

사람은 크게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 무위도식(無爲徒食)하면서 그때그때 자신이 필요한 것만 취하고 다른 사람에게는 아무런 유익을 끼치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부지런히 열심히 일 은 하지만 아주 이기적이어서 자기만 알고 자기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사람이 있으며, 또한 열심히 노력해서 얻은 것을 혼자서만 누리지 않고 다른 사람과 나눌 줄 아는 사람이 있다.

어떤 종류의 사람이든 다른 사람과 함께 살아가야 하는 존재들이다. 사람마다 장단점이 있다. 그러므로 사람 인(人)이라는 한자처럼 사람은 서로 의지해서 도움을 주고받으면서 살아야 한다. 그래서 사람을 사회적인 동물이라고 한다. 혼자서는 살 수 없다는 것이다. 함께 어울려서 더불어 살아야 한다. 그런데 너무나 다른 사람들끼리 함께 어울려 살 아간다는 것은 정말로 힘든 일이다. 말로는 “우리 모두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가 됩시다.”라고 외치지만, 서로의 주장이 다르고 서로의 추구하는 바가 다른데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다는 말인가. 무엇을 위해서 하나가 되어야 하는지는 알지만 정작 어떻게 해야 하나가 되는지는 모르는 것이다.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6절에는 그에 대하여 이렇게 답하고 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의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이요, 성령이 하나이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주도 하나이요, 믿음도 하나이요,

세례도 하나이요, 하나님도 하나이니’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게 힘써야 한다는 말씀이다. 한마디로 오래 참고 서로 용납하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화합하라는 이야기다.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상대방을 위해서 양보하고 희생하는 대가를 치러야 한다. 하나가 되려면 나의 주장을 꺾고 상대방의 생각을 존중하고 그 주장을 받아들이는 포용과 양보가 있어야 한다. 내가 옳다고 하여 끝까지 나의 주장을 굽히지 않는다면 결코 하나가 될 수가 없다. 조금 돌아가면 어떤가, 조금 늦게 가면 어떤가, 모두가 하나가 된다면 당장은 더디게 가는 것 같지만 더 빨리 더 멀리 목표에 도달할 수가 있다.

자동차 한 대에는 2만 개 이상의 부속품이 들어있다. 그 부속품은 모두 중요하다. 어떤 것은 중요하고 어떤 것은 중요하지 않은 부속이 없다. 그런데 이 부속들을 따로 떼어 놓으면 자동차는 움직이지 못할 뿐 아니라 그 부속은 아무짝에도 소용이 없다.

부속품이 제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자동차에 조립이 되어 있어야 한다. 사람도 마찬가지다. 하나가 된다는 것은 지위와 역할까지 모두 같아야 되는 것이 아니다. 자동차의 부속품처럼 각자 자기의 역할을 충실이 이행하면 되는 것이다. 아무리 잘나고 뛰어난 사람도 혼자 있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이다. 자기만 옳고 자기만 특별하다고 생각하면 절대로 하나가 될 수가 없다. 그러므로 먼저 인성이 갖추어져야 한다. 겸손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마음의 자세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리고 서로의 생각이 다를 수 있음을 인정하는 것이다.*

이기신 하나님의 5대공약

1. 세계 공산주의를 없애버리겠다.
2. 우리나라로 태풍이 못 불어오게 하겠다.
3. 여름 장마를 못 지게 하겠다.
4. 우리나라에 풍년 들게 하겠다.
5. 남북전쟁 못 일어나게 하겠다.

『45년째 지켜지고 있는 이긴자의 5대공약』

since 1981